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 대해 덧붙임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유한계급 즉, 고소득층에게는 ‘비싼 것이 아름답다’는 베블런의 말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서 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에 큰 효용(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효용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효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제학의 근간인 효용이론은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이 효용이론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는 한쪽 측면이었을 뿐이다.

베블런은 1875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 미네소타주의 개척촌에서 살았다. 개척민들은 고국인 노르웨이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고 노르웨이 말을 사용했다. 그는 열두 자녀 중 여섯째였다. 그의 부모는 억척스러운 농부로서 상당히 큰 자영 농장을 이루었고, 자식 교육에도 농사일 못지않게 정성을 기울였다. 그들은 열일곱 살 먹은 베

블런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 미네소타 칼턴대학의 존 베이츠 클라크 교수에게 경제학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베블런은 재능은 있으나 엉뚱하고 괴팍한 생각을 즐기는 이방인이었다. 그가 동부의 도시인 생활과 부자들의 행태를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년기와 소년기에 경험한 노르웨이식 농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베블런은 칼턴대학을 졸업한 후 존스홉킨스대학을 거쳐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책만 읽는 건달’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이 건달 박사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식물학, 신학 등 별별 책을 다 읽었다. 그러나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촌스러운 외모와 괴팍한 생각을 지닌 이 학자를 불러주지 않았다. 어느덧 34세가 된 베블런은 코넬대학 경제학부의 보수적 학자인 로렌스 래플린을 찾아갔다. 래플린은 베블런을 조수로 채용했고, 다음 해에 설립된 시카고대학의 경제학부장으로 초청되었다.

존 록펠러가 거금을 들여 세운 ‘과시적 소비’의 상징물인 시카고대학에서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을 저술했다. 시카고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굉장한 학식을 가진 베블런 박사라는 칭호를 얻었고, 새

로운 경제학 잡지를 편집하는 영광도 누렸다. 그리고 그의 첫 저서 ‘유한계급론’은 시카고대학이 만족할 만큼 이 대학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학계에 일대 충격을 일으켜 당시 지식인 사회의 필독서가 되었다. ‘유한계급론’이 나오자 급진파 지식인들은 그를 예찬하고 숭배했다. 그러나 베블런은 그들의 찬사를 멸시했다. 경제학자들은 그가 사회주의자인지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부자들을 냉혹하고 신랄하게 조롱했지만, 유한계급을 타도하자고 선동하지는 않았다. 사회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는 절대로 그 사회의 질서에 개입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블런은 마르크스주의자라 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의 책은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줬지만, 그의 이단적인 사상은 보수적인 미국학계와 보수적 시카고대학에서 호감을 얻지 못했다.

이 이상한 인물의 이단적인 사상은 자본주의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해명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살도 피도 없는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야만적 문화’를 신성화하려는 경제학의 허점을 통박했다. 베블런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온 낡아빠진 편견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경제학의 제도주의

인간의 사회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 생활도 선택적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진화도 제도들의 자연선택 과정이

었다. 지금까지 형성되었거나 형성 중인 인간의 제도나 인간 성격의 진보는 넓게 보면 가장 적합한 사고 습관의 자연선택의 결과이자, 인간의 삶을 규정하면서 생성해온 사회와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온 환경에 각 개인이 강제로 혹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 온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어떤 사회에 적용되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제도에 저항하거나 순응하게 된다. 다수의 구성원이 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하게 될 것이지만, 다수가 동의하면 그 제도가 그 사회에 정착되어 구성원들의 사고 습관을 형성시킨다. 제도가 사고 습관을 형성시키는 예는 다음과 같다. 사회 지도자의 혈연 세습이 제도로 정착되어 구성원들의 사고 습관이 되었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혈연에 의하지 않고 무력으로 그 자리를 강탈했다면, 많은 구성원은 이미 정착된 사고 습관에 따라 그 새로운 지도자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직위를 혈연에 따라 승계받는 것 역시, 현대적 사고 습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당연한 보편적 인간 의식의 진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세습된 지도자를 사고 습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 형성 과정에 영웅적 지도자의 세습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영웅적 지도자의 세습을 다수 구성원이 승인할 수도, 강제력으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성원의 동의

가 있든 없든, 정착한 제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사고 습관이 형성된다.

경제제도가 정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연금 등과 같은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구성원들의 사고 습관이 되지만,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발과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존재하는 제도가 이미 우리의 사고 습관으로 편입되어, 이 제도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제도로 느끼지만, 이 제도도 진보적 엘리트들에 의해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세습왕조의 사회에서 사고 습관에 위배되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한 구성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지만, 많은 사회가 그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다. 제도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할 때, 제도의 사고 습관을 넘어서는 진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보수주의적 반동의 기간이 찾아오기도 하며, 또 강고한 기득권에 막혀 진보가 늘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

제도 자체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와 기질을 보편적이거나 지배적인 유형으로 형성시킨 선택과 적응의 결과인 동시에 생활과 인간관계의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는 제도들은 최적의 기질을 타고난 개인들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형성시키므로써 변화한 환경에 각 개인의 기질과 습관을 적응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경제학의 여러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와 보수주의

제도의 본성은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습관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제도도 변할 수밖에 없다. 제도의 발전은 곧 사회의 발전이다. 제도는 실질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특별한 관계와 기능을 지배하는 사고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습관적인 견해에 영향을 끼치면서 과거로부터 전승된 관점이나 정신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선택적이고 강압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일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주도하는 사고 습관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제도는 멀지 않은 혹은 먼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수용되었지만, 과거부터 가다듬어져 전승된 것이다.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에 필요한 요건들과 완벽하게 어울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적응의 과정은 그 성격상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결코 따라잡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적응을 강제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상황, 삶의 긴박성이 매일같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들도 일단 그 상황이 성립되자마자 낡고 진부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발전과정에 있는 한 단계가 일단 확립

되면 그 단계 자체는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의 변화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그 단계는 변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적응과 변화의 과정이 끝없이 계속된다.

현재 공인된 삶의 체계를 형성하는 제도가 오늘날의 상황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말은, 지루하고 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 사람들의 사고 습관은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변하지 않는 한 무한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전승된 제도, 사고 습관, 관점, 정신적 태도와 기질은 그것들 자체가 보수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경향을 주도하는 사회적 타성 내지 심리적 관성도 보수주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계급 간 보수성의 차별화

과거의 환경에서 형성되고 그 환경에 적응한 사고 습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새롭고 상이한 환경의 압력을 받는 개인들에게 사회의 진화는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적응과정이다. 특히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진보는 ‘외부관계에 대한 내부관계의 적응’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관계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내부관계들’의 변화 결과에 따라서 부단히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응은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의 정도는 적응 능력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상황변화에 대한 사고 습관의 재적응은 언제나 마지못해 느리게, 그것도 공인된 관점들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의 강압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이루어질 뿐이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제도와 습관적인 관점의 재적응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 반응은 본성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재적응의 자유와 능력, 즉 사회구조의 성장에 필요한 능력은 일정한 시기에 주어진 상황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자유의 정도, 즉 개인들이 환경의 변화에서 강제적 구속력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개인일 경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반면 많은 경제적 자산을 이미 확보한 개인이라면,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일부 구성원 또는 어떤 계급이 무언가 본질적인 면에서 환경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은 변화한 일반적인 상황에 그들의 관점과 생활양식을 충분히 더 느리게 적응시켜도 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의 변화 과정은 더욱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부유한 계급은 이처럼 변화와 재적응을 강요하는 경제환경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 습관들을 재조정하는 과정은 상당한 정신적인 노력, 즉 변화된 환경에서 새롭게 취해야 할 태도

나 입지를 발견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소 지루하고 힘겨운 노력을 수반한다. 이 과정은 일정한 에너지의 소비도 요구할 뿐 아니라, 특히 그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훨씬 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부유한 삶 못지않게 영양 부족과 과도한 육체노동 역시 진보의 기회를 봉쇄하고 불만을 진압함으로써 진보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한다.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 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 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극빈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정치인의 발언은 “그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로 바꾸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들의 삶을 개선해 생존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중의 궁핍과 박탈감이 모든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이처럼 개혁을 저지하는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의 정치적 풍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계층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인 경우가 다수이고, 보수적 정책의 지지 계층은 고소득층이거나 하위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민생의 본질은 경제다

정치는 나라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일

과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모든 행위일 것이다. 요즘과 같은 정치의 계절에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얻기 위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별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사상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즉 민생이다.

현재 시점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한 사회주의 중국의 모습을 보면 백 년 전 장제스의 국민당에 쫓겨 징강산에 숨어들어 사회주의 해방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마오쩌둥에게 마음을 내어준 가난한 시골 농부들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은 일본제국주의, 국민당, 지주와 군벌의 착취로 도탄에 빠진 중국 인민들의 민생과 이를 뒤바꿀 희망을 보여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더 등의 젊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당시 압도적 경제력과 무기를 앞세운 국민당과 치열한 내전을 벌여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중국 인민들의 지지와 선택이었을 것이다. 홍군의 해방구에서 중국 인민들은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펼치는 민생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할 대안을 사회주의에서 찾았던 것이다. 국민당이 보여준 부패하고 인민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보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가 적어도 당시에는 우월했다. 이념과 사상도 당시의 한정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겨웠던 삶의 특별한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022년의 중국에서 과거 인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했던 삶의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과거의 참혹했던 민생에 대안을 제시한 이념은 사회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정치 제도로 기

능하고 있다. 반면 1970년대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민생의 대안을 시장경제를 통한 세계의 자본시장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념과 사상도 민생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고, 효용이 떨어진 사상은 낡은 제도로 전락한다.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개선하는 민생의 본질은 경제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민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경제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 즉 경제의 큰 틀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다. 과거 중국의 국민당군과 인민해방군이 내전을 벌여 결정한 것을 우리는 선거라는 세련된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와 마타도어를 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 나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시가지가 파괴되고 불에 타지도 않으므로 선거는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정치는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세력을 결정한다. 당연히 경제는 경제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경제학의 여러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동안 살펴본 맨큐의 경제학을 통해 살펴본 경제학의 여러 의견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과정과 사회 현상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특별히 한쪽으로 몰입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